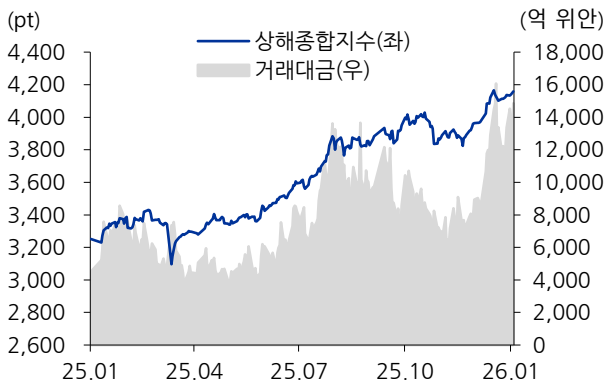
China Focus

본격 서비스 소비 부양

China 백은비_ 02)368-6157_ ebbaek@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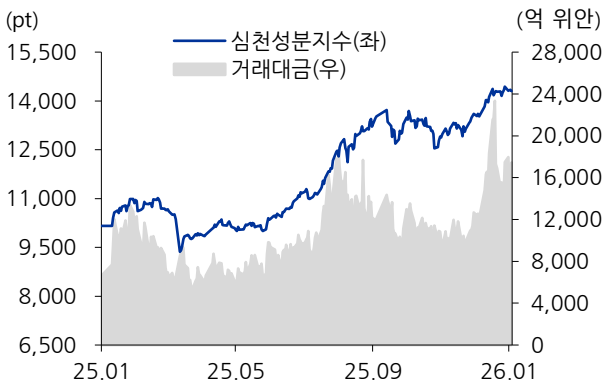
- (1/21~1/29) 상해종합 +1.1%, 심천성분 +1.0%, ChiNext +0.8%, STAR50 +1.7%, 항셍 +5.6%, 항셍Tech +2.8%, 항셍H +5.0%
- 중국 증시는 제조업 수익성 개선, 위안화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에 따른 신흥시장 선호도 상승, 부동산 규제 일단락 기대감에 상승
- 29일 국무원이 내수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언급한 서비스 소비의 육성 정책을 발표, 교통, 가사, 공연, 여행, 스포츠 등 잠재적 성장 여력이 충분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
- 정책 기대감과 함께 2월 춘절 연휴 소비 수요가 맞물림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식, 호텔, 관광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 정부가 처음으로 언급한 감성 소비 관련주에도 중장기적 관심이 필요해 보임.

상해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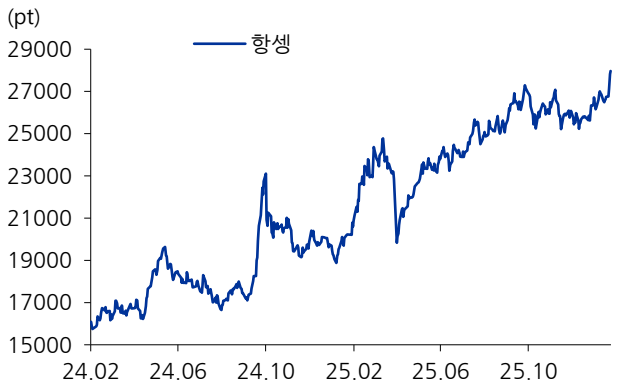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심천성분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항셍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항셍 Tech 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본격 서비스 소비 부양

1 월 29 일, 국무원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소비 육성 가속화 업무 방안〉을 발표해 서비스 공급 최적화 및 확대, 서비스 소비의 질적 성장과 혜택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소비 육성은 교통 서비스, 가사 서비스,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등 6 개 중점 분야와 공연 서비스, 스포츠 경기 서비스, 정서적/체험형 서비스 등 3 대 잠재 분야가 대상이며, 해당 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소비 수준이 고도화되며 서비스 소비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1 인당 GDP 가 1 만 달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서비스 소비 비중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보습을 보였다. 중국은 2021 년 1 인당 GDP 가 1 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아직 서비스 소비 비중은 50% 미만으로 잠재적인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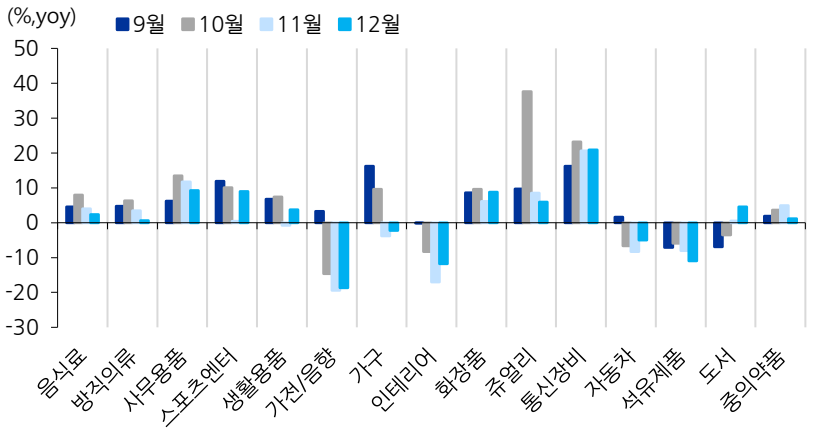
교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철도와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 관광 등 테마 열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지방정부가 기존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과 연계하여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소비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안정까지 꾀하는 정책이다.

이밖에 주목할 부분은 정책 문서상 처음으로 정서적/체험형 서비스를 언급하며 관련 직업 분류와 소비 환경을 건설할 계획이라 강조했다는 점이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티켓 발행 및 환불 제도를 개선하고 비자 면제 범위를 확대해 중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대감과 춘절 연휴의 소비 수요가 맞물림에 따라 외식, 호텔, 관광지 관련 기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중국의 춘절 연휴는 2/15~2/23 일로 9 일, 춘절 특별 수송 기간은 2/2 부터 40 일간으로 중국 발개위는 해당 기간 이원 이동량이 95 억 명으로 연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연휴 기간 호텔 예약은 +71% 증가하였으며 항공권은 +55%, 렌터카는 +97%, 여행 인원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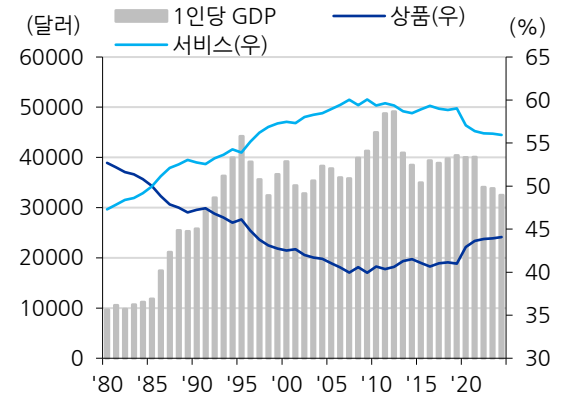
내수 회복을 위해 양회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소비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행, 레저, 공연, 감성 소비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표 1. **12 월 내구재 소비 감소, 서비스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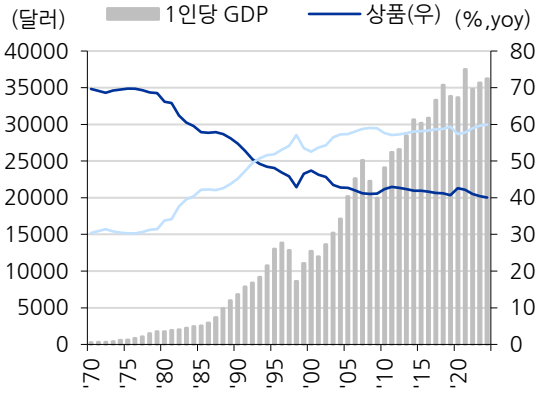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일본 1 인당 GDP 1 만 달러 돌파 후 서비스가 내수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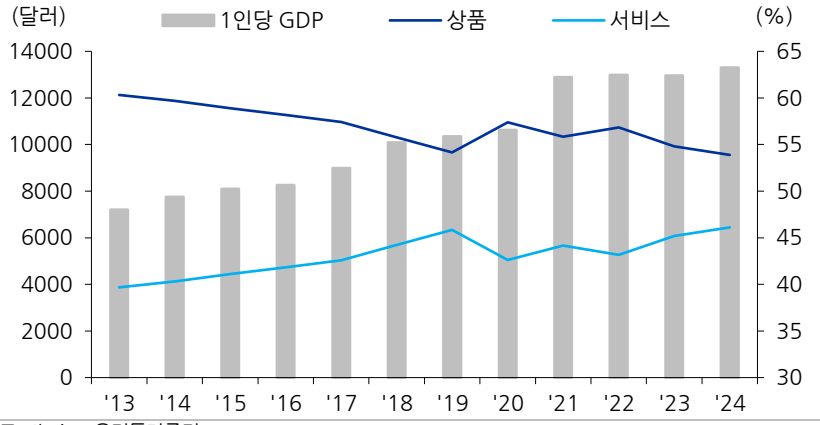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3. **한국도 1 인당 GDP 1 만 달러 돌파 후 서비스가 내수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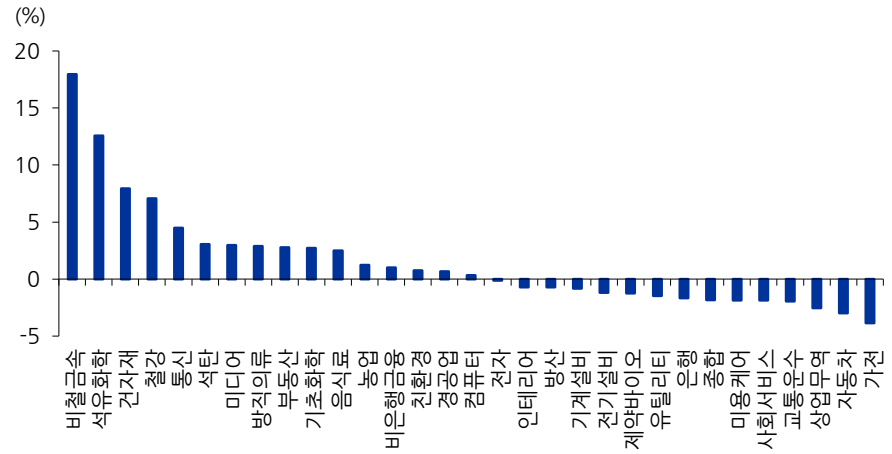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중국의 서비스 소비 비중은 46%로 상승 여력 존재**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중국 A주 업종별 주간 수익률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후강통 종목 중 중국 기관 순매수 Top10 (억 위안, %)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순매수액	등락률
600111.SH	China Northern Rare Earth	비철금속	37.40	13.08
600030.SH	Citic Securities	비은행금융	19.59	1.82
600938.SH	CNOOC	석유화학	15.66	22.87
600919.SH	Bank Of Jiangsu	은행	14.46	3.26
688256.SH	Cambricon	전자	13.60	-6.78
600392.SH	Shenghe Resources Holding	비철금속	12.57	25.86
601211.SH	Guotai Junan Securities	비은행금융	12.53	-1.88
601328.SH	Bank of Communications	은행	11.04	-3.79
603799.SH	ZHEJIANG HUAYOU COBALT	비철금속	10.51	4.74
600893.SH	AECC AVIATION POWER	방산	10.43	5.88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선강통 종목 중 중국 기관 순매수 Top10 (억 위안, %)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순매수액	등락률
300394.SZ	TFC Optical Communication	통신	54.18	21.34
300017.SZ	Wangsu Science & Technology	컴퓨터	24.48	49.20
300418.SZ	Kunlun Tech	미디어	15.38	6.31
300502.SZ	Eoptolink Technology	통신	12.94	2.73
300548.SZ	Broadex Technologies	통신	11.45	14.08
002400.SZ	Guangdong Advertising	미디어	10.23	15.58
002230.SZ	Iflytek	컴퓨터	10.00	4.04
002460.SZ	Ganfeng Lithium	비철금속	9.86	8.52
000901.SZ	AEROSPACE HI-TECH HOLDING	자동차	9.41	7.67
002129.SZ	TCL Zhonghuan Renewable Energy	전기설비	8.65	1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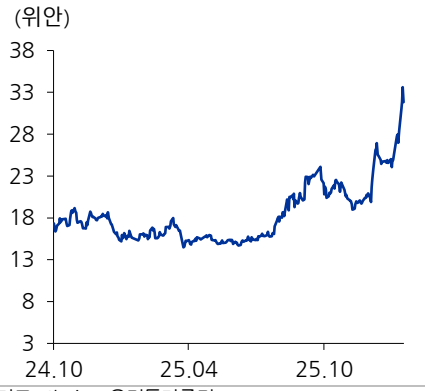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HENGTONG OPTIC-ELECTRIC

코드	600487.SH	시가 총액	785 억 RMB
섹터	통신		약 16 조 원
기업개요	#케이블, 부품	1-3Q25 실적	매출액 9.9 조 원
	전력망 케이블 부품 제조사		영업이익 5,449 억 원
주요 내용	1) 15.5 계획 기간 중 국가 전력망 공사의 고정자산 투자가 약 4 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는 14.5 계획 대비 +40% 증가한 수준 2) 중국은 전력 공급은 충분하나 신에너지 발전 관련 공급 변동성이 크고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에너지 수용 문제가 핵심 병목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3)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라 관려주가 일제히 강세, 동사는 광통신, 전력망 관련 케이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수혜 기대.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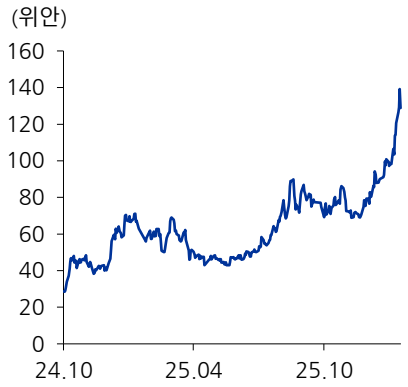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Megmeet Electrical

코드	002851.SZ	시가총액	709 억 RMB
섹터	전기장비		약 14 조 원
기업개요	#전기 부품	1-3Q25 실적	매출액 1.4 조 원
	전기 부품 제조사		영업이익 517 억 원
주요 내용	1) 전력 공급 부족 이슈로 전력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동사 주가는 근 1 개월간 10 거래일 동안 신고가를 경신 2) 특히 해외의 경우 발전 속도가 더뎌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동사는 중국 전기/전자 부품 및 전력 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가전,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납품 중.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주가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